

# 유치한 이별



이창동  
(소설가)

1954년 대구 출생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과 졸업  
1983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중편소설 〈전리〉 당선  
1987년 창작집 〈소지(燒紙)〉 발간  
〈용천뱅이〉, 〈진흙속에서〉 등  
작품 다수

「형, 노총각 신세 면하니 좋긴 좋은가벼.」  
 「왜? 내 얼굴에 그렇게 썩었나?」  
 「아까부터 계속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잖유」  
 그랬던가. 앞자리에 앉은 동생 우만의 말에  
 우식은 피식 겸연쩍은 웃음을 짓고 말했다.  
 자신도 모르게 콧노래가 입밖으로 흘러 나온다는  
 것은 역시 그만큼 들떠 있다는 것일까.  
 나이 서른 하고도 삼년을 더 넘기고 천신만고 끝에  
 결혼 테이프를 끊은 것이 불과 두시간 전, 지금은  
 바야흐로 제주도 신혼여행을 위해 김포가도를 달리고  
 있으니 콧노래가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것이었다.  
 우식은 곁에 앉은 신부의 얼굴을 힐끗 돌아보았다.  
 때마침 혜옥은 고개를 뒤로 돌리고 뒷차를 향해  
 열심히 손짓을 하고 있는 중이었다. 우식의 일행이 탄  
 차에 뒤이어 혜옥의 친구들이 탄 택시가 따라오고  
 있었던 것이다. 그쪽에서도 혜옥을 향해 야단스럽게  
 손짓하고 깔깔거리는 모습이 우식의 시선에 잡혀왔다.  
 젠장할, 우식은 속으로 혀를 찼다.  
 갖 결혼한 신부면 신부답게 좀 다소곳해야 할 게  
 아닌가. 그리고 무슨 여자들이 결혼식에 참석하고  
 기념사진 한장 찍었으면 됐지 저토록 극성스럽게  
 공항까지 따라올 건 또 뭔가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위메, 왜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유」  
 공항에 도착한 것은 비행기 출발 한시간 전이었다.  
 양손에 가방 하나씩을 든 동생 우만이 먼저 국내선  
 대합실에 들어서면서 소리를 질렀다.  
 아년게 아니라 공항 대합실 하면 조용하면서도 뭔가  
 격조있는 분위기일 것으로 막연히 상상해 왔던  
 우식으로서도 조금 뜻밖이었다. 발 디딜 틈도 없이  
 북적거리는 수많은 사람들로 대합실은 솟게 시장바닥  
 같았고, 공항 대합실이 아니라 명절날 시외버스  
 대합실이나 다름없이 보였던 것이다.  
 「아니, 이 사람들이 다 비행기를 타러 나온  
 사람들인가?」  
 「요즘 결혼 시즌이잖아요. 신랑, 신부 친구까지  
 따라오니 이럴 수밖에요. 공항에 침 와 보세요?」  
 혜옥이 눈을 흘기며 하는 말이었다. 그리고 덧붙여  
 이렇게 종알거렸다.  
 「제발 그 촌티좀 내지 마시라고요.」



우식은 할 말이 없었다. 처음 맞선을 보고 결혼하기까지 형식적인 교제를 하는 동안에도 혜옥은 자주 그런 말을 했었는데, 그때마다 우식은 할 말이 없었다. 자신은 아직 촌때를 벗지 못한 시골 국민학교 선상이요, 혜옥은 예쁘고 세련된 서울 여자임이 틀림없었으니까.

답승수속을 밟기 위해 사람들 사이를 뚫고 나가려고 했을 때였다. 신부의 여자친구들이 우식의 팔을 붙잡고 소리쳤다.

「아니, 그냥 가실거예요?」

「그냥 가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어머, 능청부리시는 것 좀 봐. 정말 이러시게예요?」

택시를 잡아타고 뒤쫓아 왔던 대여섯 명의 신부 친구들은 금새 우식을 에워싸고 합창하듯 소리를 질렀다. 그러나 솔직히 우식은 영문을 알 수가 없었다.

「무슨 말씀이신지…」

「꽃값 말예요.」

「꽃값? 무슨 꽃값인데요?」

「어머, 어머, 기가막혀. 혜옥아, 정말 이래도 되는거니?」

그제서야 혜옥이 조금 짜증스런 얼굴로 우식에게 말했다.

「정말 모르고 그러시는 거예요? 제 친구들 오늘저녁 같이 식사라도 하게 돈 좀 주세요.」

「아, 예. 진작 그렇게 말해야지. 난 또…」

우식은 그렇게 말하면서 주머니를 더듬거렸지만, 속으로 적잖이 당황할 수 밖에 없었다. 주머니에 신혼여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 준비해 넣었을 뿐 이런 예상외의 지출이 있을 줄은 미처 몰랐던 것이다.

「어마 이게 뭐예요?」

겨우 손 끝에 잡히는 대로 꺼낸 몇 장의 지폐를 내밀자 여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소리를 질렀다.

「우릴 어떻게 보고 이래요?」

「거지에게 동냥주시는 줄 아나 봐.」

그러자 얼굴이 빨갱게 된 혜옥이 우식에게 낮은 소리로 재빨리 말했다.

「정말 자꾸 창피하게 그러실 거예요? 내 체면도 생각해 주셔야죠.」

「그럼 어, 얼마를 줘야 합니까?」

「한장은 주셔야죠. 다들 그렇게 해요.」

우식은 기가 막혔다. 한 장이라면 물어 볼 것도 없이 십만원인데, 그 돈을 주고나면 신혼여행도 포기해야 할 게 뻔했다.

「미, 미안합니다. 준비한 게 없어서…」

그런 식으로 궁색하게 변명하며 우식은 그 자리를 떠나려 했지만 여자들은 조금도 사정을 봐주지 않았다. 저마다 한마디씩 떠들며 그의 양복자락을 붙잡고 놓아주질 않는 것이었다.

「형, 내게 있는 돈 좀 빌려줄까?」

그 위기를 모면하게 해준 것은 동생 우만이였다. 우만이가 한쪽으로 돌아서서 돈을 세고 있는 모습을 보며 우식은 한숨을 내 쉬었고, 문득 주름투성이의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다.

쌍생 땅에 코를 박고 농사를 지으면서 아버지 없는 사식들을 키워 온 어머니는 그 중에 만자식만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공부를 시키겠다는 일념이었고 따라서 우식이 농사꾼 신세를 면하고 시골 국민학교 선생으로 있게 된 것은 순전히 어머니의 그 눈물나는 정성 덕분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시골청년 장가가기 힘들다고 하지만, 우식은 자기까지도 나이 삼십을 훨씬 넘기도록 장가를 못가게 될 줄은 미처 몰랐었다. 물론 고향에서 대처에 나가 돈벌이를 하고 있는 처녀들을 찾으면 얼마든지 골라 잡을 수 있는 처지였지만, 명색이 교육대학을 졸업한 학교 선생의 자존심이 있는지라 그러기는 싫었고, 자신과 비슷한 여고사 중에서 짝을 고르고 싶었는데 그것이 쉽지가 않았다. 같은 교사라도 시골학교 교사는 값이 깎였고, 더구나 흠여머니와 밑으로 동생들이 다섯이나 올망졸망하게 딸려 있다는 사정을 들으면 모두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것이었는데, 그러다보니 어느 새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할 노총각 신세가 되고 만 것이었다.

같은 학교 동료 교사로부터 혜옥을 처음 소개 받았을 때, 우식은 눈이 번쩍 뜨이는 기분이었다. 서울 토박이라 그런지 무엇보다 도시물이 잔뜩 배인 세련된 걸보습이 지금까지 만나 본 다른 신부감과 달랐다. 그쪽도 어찌어찌 하다보니 혼기를 놓쳐버린 여자여서 시골학교 선생이라도 마다하지 않을 작정인가 보았지만, 어쨌든 우식은 첫눈에 마음을 정하고 말았다.

지난 여름방학에 처음 만난 뒤로 우식은 주말만

되면 여자를 만나기 위해 부지런히 서울을 오르내렸다. 그리고 어머니의 걱정이 단순한 기우가 아니란 것을 깨달은 것은 결혼약속을 하고 난 뒤였다.

우선 혜옥은 서울여자라서 그런지 허영심이 많았고, 고집이 세었다. 차 한잔을 마셔도 고급 호텔의 커피숍 같은 데로 가야 했고, 십분을 갈 거리라도 택시를 타야 직성이 풀리는 것 같았다.

신혼여행만 하더라도 우식은 어디 온천이나 경주같은 곳으로 다녀오자고 했지만 여자는 꼭 제주도 여행을 해야 한다고 고집을 부렸던 것이다. 하지만 우식은 이런 것이 모두 서울여자의 생활습관인 탓이라 믿었고, 막상 결혼해 자기 살림을 맡게되면 말 잘듣고 알뜰한 아내가 되어주리라 믿었던 것이다.

그런데 정작 말썽이 난것은 탑승 수속을 밟기 위해 수속대 앞으로 갔을 때였다. 공항 공안원이 주민등록증 제출을 요구했던 것이다.

「아니 난 주민등록증이 없는데..」

「주민등록증이 없으면 탑승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곁에 있던 혜옥이 기가 막히다는 얼굴로 끼어들었다.

「아니. 정말 안가지 오셨어요? 비행기 타러 나오면서 주민등록증을 안갖고 나오는 사람이 어딴어요?」

우식은 참으로 난감한 기분에 빠져 어찌할 바를 모르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신부의 친구들이 재미있다는 표정으로, 그리고 경멸의 눈빛을 숨기지 않고 자신의 얼굴을 뻔히 지켜보고 있었다.

「비행기 시간은 다 되고... 어떡해요. 책임지세요..」

혜옥이 상기된 얼굴로 발을 동동 굴렀다.

「내가 어떻게 책임을 집니까?」

「비행기를 못타게 되었잖아요. 댁이 주민등록증을 안갖고 나와서 이렇게 되었으니까 책임을 지셔야죠..」

우식은 기가 막혔다. 급한 김에 나온말이겠지만, 이제 어엿한 남편된 사람에게 <댁>이 뭔가. 도대체 이 여자가 남편이란 존재보다 오직 비행기 타고 제주도 여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슬며시 들 정도였다.

「내가 비행기 타는데 주민등록증이 필요한지 호적등본이 필요한지 알게 뭐요. 그런거 미리 좀 이야기 해주었어야지..」



「어머, 그런걸 꼭 얘기해 줘야 알아요? 상식아네요?  
정말 촌사람은 할 수 없어.」

「뭐? 촌사람? 말 다했소?」

「그럼, 촌사람을 촌사람이라 부르지 뭐라 불러요?」

「위배, 벌써부터 사랑싸움이유? 대책부터  
세우셔야지유.」

보다 못했던지 우만이 곁에서 너스레를 떨며 끼어 들었다. 사실 그때까지만해도 우식은 어떻게든 신부의 기분을 달래어 볼 생각이었다. 어쨌거나, 일이 이렇게 된 것은 자기 실수가 틀림없었고, 더구나 동생 우만과 신부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이런 식으로 티격태격하고 있다는 것이 민망스럽고 창피하기 짝이없는 노릇이었다. 적어도 혜옥의 그 「촌사람」이란 말만 나오지 않았어도 우식이 그렇게 화를 내지는 않았을 것이었다.

「그러, 난 촌사람이라서 이런 비행기 타보지도 못했고 타는 풍습도 몰라요. 그만큼 진작부터 제주도나 비행기니 그만두고 어디 가까운 온천이나 갔다오자고 하지 않았냐 말여.」

「정말 이렇게 유치하게 나오실 거예요?」

「그러, 나는 올데갈데 없이 유치한 촌사람인게 유치한 말밖에 할 줄 몰라 비행기 꼭 타고 싶으면 고상한 서울사람이나 혼자서 실컷 타고 가라고.」

눈꼬리를 파르르 떨며 혜옥이 간신히 입을 열었다.

「말 다했어요?」

「할 말은 많지만 그만 하겠오. 여하튼 난 돌아갈 테니 따라오고 싶으면 따라오고, 비행기 꼭 타야 싶으면 혼자 가시란 말요.」

「형님, 정말 왜 이래유. 생전 안 부리던 성질을 나 부리구. 참아요, 형님.」

우만이 그의 팔을 붙잡았지만 우식은 단호히 뿌리치고 대합실을 빠져나왔다. 그리고 택시를 붙잡아 미련없이 올라타고 말았다.

「형님, 어머니한테는 뭐라구 한대유?」

「차라리 잘 됐다. 우리 주제에 무슨 비행기여. 기지도 못하는 주제에 날려고 들었으니.」

「비행기 이야기가 아니라 결혼 말이유.」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여.」